

## 트랜스젠더 혐오차별 실태조사 결과 요약

### □ 트랜스젠더 혐오차별 실태조사 개요

#### ○ 실태조사 개요

- 과제명 : 트랜스젠더 혐오차별 실태조사
- 계약기간 : 2020. 5. 18. ~ 11. 17.
- 계약상대방 : 숙명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
- ※ 연구책임자 홍성수, 공동연구원 강민형, 김승섭, 박한희, 이승현, 이혜민, 이호림, 전수윤

#### ○ 설문조사

- 내용 : 트랜스젠더가 경험하는 혐오차별에 대한 설문조사 실시(9개 분야)
  - ※ 1) 성별 정정 및 신분증 2) 가족생활 및 일상 3) 학교·교육 4) 고용·직장 5) 화장실 등 시설이용 6) 군대, 구급시설 등 국가기관 7) 의료적 조치 및 의료접근성 8) 기타 혐오차별 9) 건강수준
- 대상 : 한국에 거주중인 만 19세 이상 트랜스젠더 591명이 참여한 온라인 설문조사 진행
  - ※ 트랜스젠더 대상의 실태조사로서 국내 최대 규모의 실태조사(기존, 2017년 ‘한국 성인 트랜스젠더 건강 연구’, 레인보우커넥션프로젝트, 278명 대상)

### □ 트랜스젠더 혐오차별 실태조사 결과

#### ○ 응답자의 트랜스젠더 정체성

- 트랜스여성 189명(32.0%), 트랜스남성 111명(18.8%), 논바이너리 지정성별 여성 221명(37.4%), 논바이너리 지정성별 남성 70명(11.8%)

#### ○ 법적 성별 정정

- 응답자의 8.0%인 47명이 법적 성별 정정을 했고, 4.7%인 28명이 현재 법적 성별 정정절차를 진행중이며, 86.0%(508명)은 법적 성별정정을 시도한 적이 없다고 응답
- 성전환 관련 의료적 조치에 드는 비용(58.9%), 복잡한 법적 성별 절차(40.0%), 성전환 관련 의료적 조치에 따른 건강상 부담(29.5%) 때문에 법적 성별 정정을 시도한 적이 없다고 응답

- 법적 성별 정정을 했거나 시도한 경험이 있는 응답자 82명은 그 과정에서 성전환 의료적 조치와 관련한 요건 갖추기(78.1%), 서류 준비 및 작성(61.0%), 정확한 정보 찾기(47.6%), 법원 심리과정(31.7%), 가족들 반대(28.1%) 등으로 어려움을 겪었다고 응답

### ○ 신분증 제시 및 관공서 이용 경험

- 응답자들은 신분증이나 주민등록번호를 제시하는 의료기관 이용(21.5%), 담배구입이나 술집 등 방문(16.4%), 보험 가입 및 상담(15.0%), 은행 이용 및 상담(14.3%), 투표 참여(10.5%), 전화·인터넷 가입 및 변경(9.2%), 증명서 발급(8.5%), 주택 관련 계약(8.1%) 등의 일상적 용무를 할 때 부당한 대우를 받을까봐 이를 포기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
- 지난 2020년 국회의원 선거에서 응답자의 19.5%(115명)가 투표에 참여하지 않았는데, 이들 가운데 신분증 확인으로 출생시 법적 성별이 드러나는 것이 두렵거나(27명), 신분증 확인으로 현장에서 주목 받는 것이 두려워서(26명) 투표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응답

### ○ 가족생활 및 일상

- 가족들이 본인이 트랜스젠더라는 것을 모르는 경우가 203명(34.4%), 반대하거나 무시하는 경우가 152명(25.7%), 지지하지도 반대하거나 무시하지도 않는 경우가 96명(16.2%)라고 응답
- 본인이 트랜스젠더라는 것을 가족들이 알고 있는 경우, 모른 채 하거나(56.6%), 본인이 원하는 성별 표현을 못하게 하거나(44.0%), 언어적 폭력(39.4%), 경제적 지원 중단(12.9%), 신체적 폭력(9.9%), 정체성을 바꾸기 위해 상담사/종교인에 데리고 가는 경험(9.9%), 집에서 내쫓은 경험(9.4%)이 있다고 응답
- 응답자들은 사람들이 본인의 성별 정체성을 인지하게 하려면 많은 노력을 해야 하고(76.7%, 451명), 사람들이 본인의 성별 정체성을 본인이 바라보는 것과 다르게 보기 때문에 본인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인식(73.7%, 434명)하고, 본인의 성별 정체성대로 인식되는 것에 어려움을 겪으며(71.8%, 423명), 외모나 몸 때문에 본인의 성별 정

체성을 존중하지 않는다(66.4%, 391명)고 응답

- 응답자의 22.3%(132명)는 전환치료(트랜스젠더가 자신이 정체화하는 성별이 아니라 출생 시 지정된 성별로 살아가도록 강제하기 위한 치료) 목적의 상담 또는 치료를 권유받은 경험이 있고, 11.5%(68명)은 실제로 상담이나 치료를 받았다고 응답

### ○ 학교 · 교육 영역

- 중고등학교 다닌 경험이 있는 584명 중 92.3%인 539명이 성소수자 관련 성교육 부재, 성별 정체성에 맞지 않는 교복 착용 등 힘들었던 경험이 한 가지 이상 있다고 응답
- 응답자의 67.0%는 중고등학교 수업 중 교사가 성소수자를 비하하는 발언을 들은 경험이 있고, 21.3%는 교사로부터 폭력이나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응답
- 대학교 · 대학원을 다닌 경험이 있는 469명은 교수 등이 수업중(42.4%)에, 수업외 시간(24.7%)에 성소수자를 비하하는 발언을 들은 경험이 있고, 14.9%는 한 가지 이상의 폭력이나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

### ○ 고용 · 직장영역

- 구직 활동 경험이 있는 469명 중 268명(57.1%)이 성별 정체성과 관련하여 구직 포기 경험이 있다고 응답
- 구직 · 채용 과정에서 외모 등이 남자/여자답지 못하다는 반응(48.2%), 주민등록번호에 제시된 성별과 성별표현의 불일치(37.0%), 출신학교 등을 기재해야 하는 지원서류 제출(27.0%) 시 어려움을 겪었다고 응답
- 직장에서 화장실 · 탈의실 등 남녀가 구분된 회사 내 공간(26.9%), 남녀가 구분된 복장(14.1%), 출장 · 워크숍 시 남녀가 분리된 숙소(10.9%) 등 관련 어려움을 겪는다고 응답
- 직장에서 용모 · 말투 등이 남자/여자답지 못하다고 반복적 지적(26.6%)당하고 성별 정체성에 대한 불필요한 질문을 받고(17.1%), 본인의 성별 정체성을 동의없이 다른 사람에게 알리고(8.9%), 성희롱

또는 성폭행(8.2%) 경험이 있다고 응답

○ 화장실 등 공공시설 이용

- 응답자의 40.9%(241명)가 성별 정체성과 다른 성별의 시설을 이용하고, 39.2%(231명)가 화장실 가는 것을 피하기 위해 음료를 마시지 않거나 음식을 먹지 않으며, 37.2%(219명)가 멀더라도 남녀공용 또는 장애인화장실, 인적이 드문 화장실을 이용하였고, 36.0%(212명)는 화장실 이용을 포기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
- 관공서 이용하면서 공무원 등 직원으로부터 모욕적이거나 불필요한 질문을 들은 경험(12.5%, 62명)이 있고, 10.1%(50명)는 다른 사람에게 요구하지 않는 추가 서류나 절차를 요구받았다고 응답

○ 군대, 교정시설 등 국가기관

- 출생 시 지정 성별이 남성인 응답자(259명) 중 42.1%(109명)이 현재 군 복무 중이거나 군복무를 마침
- 군복무 경험이 있는 응답자들은 공동 샤워시설 이용시(58.3%), 성소수자 비하 발언 및 이를 용인하는 문화(54.6%), 성별 정체성이 알려질 것에 대한 두려움(52.8%)이 있다고 응답하였고, 관심사병으로 분류되거나(29.5%), 성희롱 또는 성폭력(12.4%)을 당했다고 응답
-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은 경험이 있는 157명 중 15.9%(25명)가 경찰 및 검사에게 성별 정체성과 맞지 않는 호칭(18명), 모욕적 발언(17명), 독립되지 않은 공간에서 조사하여 성별 정체성이 알려짐(7명) 등 성별 정체성 관련 폭력이나 부당한 대우를 경험하였다고 응답

○ 의료적 조치 및 의료접근성

- 응답자의 49.3%(291명)가 성주체성 장애 관련 정신과 진단을 받았고, 호르몬 요법(250명, 42.4%), 성전환 관련 외과적 수술(123명, 20.9%) 경험이 있다고 응답
- 정신과 진단을 받지 않은 이유는 당장 진단서가 불필요(45.1%), 경제적 부담(34.3%), 의향이 없음(33.3%), 제대로 진단할 정신과 찾기 어려움(26.3%) 순으로 응답

- 호르몬 요법을 받지 않거나 중단한 이유는 경제적 부담(50.9%), 주변 시선(42.0%), 정신과 진단 없어서(34.9%), 경제활동에 어려움 예상(34.9%) 등의 순으로 응답
- 성전환 관련 외과적 수술을 받지 않은 이유는 비용 부담(71.0%),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아(37.8%), 경제활동에 어려움 예상(33.1%), 수술에 필요한 의료적 요건 맞추지 못해(32.6%), 주변 시선(31.1%), 수술과정의 위험성(30.7%) 순으로 응답
- 호르몬 요법 또는 성전환 수술을 받은 경험이 있는 응답자 285명들은 직장을 다니면서(43.2%), 학교를 다니면서(33.3%) 진행하였고, 퇴사(9.5%)나 휴학(8.8%), 자퇴(4.6%)를 하고 진행했다고 응답
- 의료적 조치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 인터넷 검색엔진(63.8%)이나 트랜스젠더 관련 웹페이지 또는 인터넷 카페(60.6%)에서 찾아보았다고 응답
- 의료적 조치를 위해 국내 의료기관을 이용한 351명 중 73.2%는 트랜스젠더 친화적 의료기관을 방문하였고, 이름 또는 성별이 맞는지 질문을 듣거나(16.8%), 의료진에게 성전환 관련 의료적 조치에 대하여 설명하거나(16.2%), 모욕적 질문을 들었고(8.3%), 성전환 관련 상담 등을 거부당했다(7.4%)고 응답
- 일반적 의료이용을 위해 의료기관을 방문한 526명 중 33.1%는 성별 정체성에 맞지 않는 입원실·탈의실을 이용했고, 28.5%는 의료인·직원이 이름·성별이 맞는지 물었으며, 10.7%는 모욕적 발언 또는 불필요한 질문을 들었다고 응답
- 전체 응답자 중 164명은 지난 12개월 동안 의료기관에 방문할 필요가 있었으나 포기한 적이 있다고 응답
-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한 적이 있는 303명 중 5.3%(16명)가 트랜스젠더라는 이유로 보험 가입을 거부당했다고 응답

## ○ 기타 혐오차별

- 응답자의 65.3%(384명)는 지난 12개월 동안 트랜스젠더라는 이유로 차별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응답

- 지난 12개월 동안 SNS를 포함한 인터넷(97.1%), 방송·언론(87.3%), 드라마·영화 등 영상매체(76.1%)를 통해 트랜스젠더 혐오표현을 접한 적이 있다고 응답